

<김영택 : 소아 급성 신염. 소아과 1958;1:1-11>를 읽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신장과, 연세대학교 신장질환 연구소

이 재 승

대한 소아과학회의 학술지인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구: 소아과)가 발간된지 50주년이 되었다.

소아신장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부끄럽게도 1권 1호의 1쪽에서 시작되는 종설“소아 급성 신염”을 처음 읽게되었다. 종설을 쓰신 고 김영택 교수님은 수련의때부터 학회에서 자주 뵈었으며 인품이 훌륭하신 교수님으로 많은 후학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시다.

본 논문을 대하니 50년의 세월이 많은 변모를 보여주어 감개 무량하다.

가능하면 많은 한자어로 내용을 전하려 했던 문장과 그간에 달라진 맞춤법 및 단어들로 50년이면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구나 하는 어림을 하게 된다.

“소아 급성 신염”에 관한 50년전 종설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제목인 “소아 급성 신염”은 소아 연령에서 발생하는 급성 사

구체신염을 의미하는 것 같다.

봄과 초겨울의 계절별 발생빈도가 높아 유행성 신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또 한냉스트레스 영향이 신염발생을 조장한다고 한 것은 흥미롭다. 이는 용연구균 감염후 급성 사구체신염의 계절성 발생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균 감염으로 사구체신염을 일으키는 기전은 불분명하다고 했으며 알레르기성, 선천성 소인, 호르몬 분비 상태 이상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증상과 예후에 대하여는 용연구균감염후 급성 사구체신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급성 사구체신염은 수주내에 사망하거나 회복되는 사구체신염이며 원인은 많으나 감염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에서는 만성 사구체신염의 급성 악화인 급성 신염증후군과 구별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50년전의 설명들이 지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어 1970년대 이후 신장학 분야의 발전을 재확인 해주는 것 같다.